



# 공정정보도

2011-2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전화398-3620~2/ 팩스398-3630/  
발행인 공병설·공보위간사 고희규

www.newsunion.co.kr

## 편집위, 선거보도 공정성 제고방안 논의 재난현장 취재 안전 확보책도 고민

제3기 노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는 4월 26일 위  
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어 재난현장  
취재시 안전확보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4·27재보선의  
일부 보도를 짚어보면서 선거보도의 공정성 제고방안  
을 숙의했다.

선거보도와 관련, 노측은 부정 선거운동 소재를 다  
루는 기사에서 큰 잘못과 작은 잘못을 구별하고 이슈  
의 경중을 가리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말  
했고, 사측은 선거 과정에서는 어느 편이나 어떤 내용  
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렵기에 팩트를 왜곡하거나 누  
락하지 않은 채 전달하는 게 최선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공식 안건 없이, 앞서 열린 공정정보도위  
원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노측에서 공정정보도위원회 고희규 간사, 류  
지복 부간사, 현윤경 총무, 김성진 기협 지회장, 정성  
호 노조 사무국장이 참석하고, 사측에서는 김성수 상  
무, 이래운 편집국장, 김대영 국제국장, 김용수 지방국  
장, 이선근 통합뉴스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채삼석 기사  
심의실장이 옵서버로 처음 함께했다.

### <요약>

#### ◇ 선거보도 이슈

■ 노측 = 4·27 재보선 막바지 불법 선거운동이 이  
슈가 됐다. 공보위 회의에서는 여야의 큰 잘못과 작은  
잘못을 질적 구별없이 한데 묶어 보도한 것은 아니냐  
는 지적이 나왔다.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기사 작법의

기술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예컨대 ‘엄  
기영의 불법 전화부대’와 ‘최문순의 문자메시지 허위  
문제가 같은 수준에서 다뤄지고 ‘불법·혼탁’으로 한 덩  
어리로 묶어서 가야하는 것인지 하는 고민들이다. 또  
이런저런 사안을 다 다루기는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  
은 느낌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 방송 개국과 함께 내  
년 총선과 대선 등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닥친다. 선거  
보도의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 사측 = 노조의 지적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다  
만 큰 잘못, 작은 잘못을 선거운동 당시 시점에서 평가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중에 대법원 최종 판결  
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후보의 직접 개입 여부도  
살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쓰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명  
백한 잘못은 지적하려고 한다. 무조건 흐리려는 생각  
은 없었다. 방송을 하게 되면 총선, 대선을 치를 때 특  
별취재단이 구성될텐데, 내부 논의를 통해 선거보도에  
관한 몇가지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단 기본 원  
칙은 팩트를 전하고, 팩트를 근거로 잘못이 있으면 지  
적을 해야한다는 생각은 갖고있다. 엄기영, 최문순 기  
사의 경우 반반 섞어서 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  
던 측면이 있다.

#### ◇ 재난취재 대비

■ 노측 = 일본 대지진 당시 여러 사우가 현장에 출  
장을 갔다. 일부 사우는 갑자기 투입돼 교통, 통신수단  
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몇몇 기자는 일본어

도 거의 못하는데 통역도 신청치 않아 고생을 했다고  
한다. 일본 대지진은 재난 보도에 대한 회사차원의 체  
계적인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잘 드러낸 계기라고  
생각한다. ‘맨땅에 헤딩하는’ 상황에서 기자를 보호해  
주는 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 매뉴얼이다. 특히 ‘회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갖게 해야한다. 그  
래야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사측에서 전  
향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이  
번 대지진 초기에 일본 현지 출장과 관련해 지휘체제  
가 명확하지 않았다. 4국장 체제로 바뀐 뒤 이런 부분  
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사측 =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고 인정한다. 사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걱정하는 부분이다. 회사가 나  
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쓰겠다. 재난취재 매뉴얼을 만드는 중이다. 사회  
에디터를 통해 재난 사례를 수집하는 등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 글로벌 통신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안  
전교육 문제는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장  
에 보낼 때에는 현지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야  
스케치도 하고, 취재도 더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언어  
는 생존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특파원 파견때처럼 총무·인사 파트에서 매뉴얼을 갖  
고 전담 처리하는 방법도 효율성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누군가를 파견하기 전에는  
지휘체계에 대해 정리하고, 혼선이 없도록 해야겠다.

## 연합 선거보도 리뷰하기로 참글상 상금도 인상키로

참글상 포상이 강화된다.

노조 공정정보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에 이은 온라인 찬반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의 참글상’ 대상의 상  
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우수상  
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장려상을 신설, 상금 30만원을 주  
기로 했다.

공보위는 이와 함께 연말에 시상하는  
‘올해의 참글상’ 대상 상금도 100만원  
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후보 자  
격요건을 ‘이달의 참글상’ 대상수상작  
에서 우수상 이상 수상작으로 바꾸기  
로 했다.

이러한 상금 인상과 후보 자격 조정  
은 참글상의 가치 제고와 사내 관심 환  
기를 위한 것이다.

위원들은 이 조치를 계기로 권력·자  
본 견제, 소외계층 보호, 사회갈등해소  
를 위한 취재 활동과 기사 작성이 한층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했다.

노조와 공보위는 조만간 공보위 운영  
규칙을 고치고, 노조기금 운영과 관련  
한 의결을 거쳐 조정된 상금과 조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보위는 또한 4.27 재보선이 끝남에  
따라 연합뉴스 선거보도가 공정했는지  
살펴보는 ‘리뷰’(review) 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선거보도가 불공정했다는  
‘과거 반성’이 아니라, 보도채널 출범과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선거보도의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에 따른 ‘미래 대비’ 차원에서다.

## 이달의참글상 대상에 황정우 조합원 우수상에 다문화부·특별취재팀

연합뉴스 공정정보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오후 노조사무실에서 4월 공보위  
회의를 열어 이달의 참글상 대상에 황  
정우 조합원의 ‘리비아서 철수 방글라  
근로자 3명 사망’ 후보작을 선정했다.

우수상에 다문화부와 특별취재팀이  
공동 송고한 ‘<경계와 차별을 넘어>  
후보작이 뽑혔다.

황 조합원의 기사는 국내 건설업계  
가 중동과 같은 제3국에서 눈부신 수  
주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이면엔 노  
동자로서 권익을 박탈당한 저임금 노  
동자가 엄연히 양립하고 있음을 부각  
했다는 데 공보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빈국출  
신인 이들 저임금 단순 노동자는 열악  
한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자로서 최소

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할 권리조차 인  
정받지 못하고 경제 성장의 희생양으  
로 잊혀져 가는 게 현실이다.

공보위는 리비아 사태로 누구나 목  
숨을 건 탈출을 해야 하는 생존의 극  
한점에서 인간 존엄성을 박탈당한  
이들 노동자의 현실을 조명한 황조합  
원의 기사가 참글상의 취지에 부합한  
다는 데 동의했다.

다문화부·특별취재팀의 기사는 다문  
화가정, 새터민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  
층이 겪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다  
각적으로 취재해 소외계층의 보호라는  
참글상의 취지에 맞아 떨어진 점이 점  
수를 받았다.

다만, 취재 소재가 다소 참신하지 못  
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돼 논의 끝  
에 우수상으로 결정했다.